

전자책 서두를 필요 없다

수익 창출되는 것부터 것부터 차근차근

글 백승오

언젠가 방영된 TV의 다큐드라마가 떠오른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종이를 만들기 위해 무수히 베어지는 나무들을 본 적이 있다. 무참히 쓰러지는 나무들, 기계충 번진 머리마냥 행하니 패인 숲 속의 공간. 그 프로그램의 요지는 환경보호였다. 그 나무들은 종이로 만들어지기 위해 베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종이의 재활용 운동은 내가 그 TV프로그램을 보기 훨씬 이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긴 하다.

그리고 몇 해 후 컴퓨터 보급속도에 가속이 붙으면서 디지털 시대를 알리는 갖가지 추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종이 시대의 마감'이라는 것이다. 그 순간 문득 나는 아름답리 나무들이 베어나가는 TV 속의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다. 디지털시대를 떠올리며 내가 가졌던 생각은 '이제 종이를 만들기 위해 저 푸른 숲을 더 이상 파괴할 필요가 없어지겠구나'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도 꽤 환경을 염려하는 환경보호론자였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러한 안심도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잃어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금새 사라질 줄로만 여겼던 종이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었고 나

무들은 여전히 베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년간 언론 등에서 호들갑을 떨며 예언하던 일들이 때로는 예측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전자책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본격적인 디지털시대로의 입성을 하긴 했지만.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 도서관이라는 건물은 그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서라도 인간사회에서 知的 역사를 이어주는 공간인 것이다. 그 공간과 그속에 간직된 지적 축적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이 시대에도 존재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 도서관이라는 건물은 그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서라도 인간 사회에서 知的 역사를 이어주는 공간인 것이다. 그 공간과 그속에 간직된 지적 축적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이 시대에도 존재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시점이면,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듯 두서없는 소리를 할까?'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종이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자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종이책'의 판매부진은 '디지털' 탓?

앞서 지적했듯이 출판사 및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도서들을 인터넷 공간으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시대의 주류는 디지털화 된 정보라는 인식이 앞섰겠지만 근본적으로 '종이책'의 판매 부진을 불러온 큰 요

인은 아니라고 본다.

도서의 판매 부진은 정보습득의 공간이 인터넷 속의 가상공간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에는 미안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

'종이책'의 판매 부진은 절대 독서량의 감소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뉴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정보까지도 가상공간에서 해결이 가능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도서의 판매량 감소에 일조는 할 지언정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도서의 판매나 새로운 종류의 전자책 출간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편리성과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니와 오히려 지향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도서를 전자책의 형태로 유통을 한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수십년 안에 종이 사라질 것처럼 호들갑이다. 이러한 호언장담 또한 믿기 어려운 말들 중의 하나다.

쉬운 예를 들어 수험생이나 특히 고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과연 가능한 일일까? 마우스를 움직여가며 법전을 뒤지는 고시생의 모습,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다. 자신이 고시나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면 쉽게 수긍이 갈 것이다.

'종이책'의 퇴장을 성급히 결정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전자책들이 출간되고 있고 그에따라 사람들의 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뤄져 명실상부한 전자책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여전히 '종이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

철학서나 역사서, 장편소설 등 모니터를 통해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종류는 분명히 존재한다. 성급히 종이의 퇴출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고 결코

도서의 판매 부진은 정보습득의 공간이 인터넷 속의 가상공간으로 옮겨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에는 미안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

'종이책'의 판매 부진은 절대 독서량의 감소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의 증가는 날이 갈수록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뉴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정보까지도 가상공간에서 해결이 가능해지고 있다.

없어지지 않을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전자책에 맞는 도서의 종류, 이를테면 만화나 단편소설, 수필, 신변 잡기류 등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은 이미 디지털화된 가상공간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실제로 판매고가 높아지고 있다. 마케팅 방향도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지적한 대로 디지털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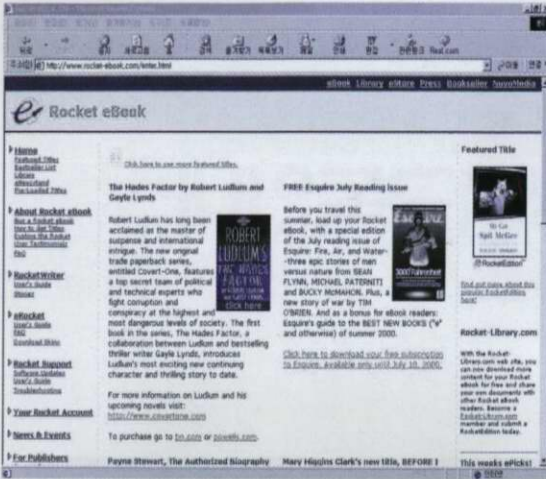
도서들의 대부분은 거의 판매고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명색만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전자책 어디까지 왔다

이미 전자책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인터넷 서점에서는 도서의 판매 뿐만 아니라, 전자책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모바이포켓(www.mobipocket.com)이라는 미국의 전자책 판매 사이트는 온라인 상으로 서적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휴대폰(Mobile)을 통한 전자책 서비스에 있는데, 모바일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전자책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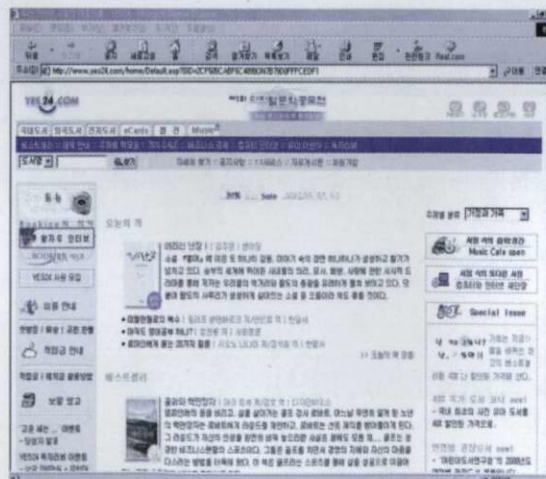




러받아야 하며, 일일이 과금을 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이 사이트의 최근 베스트셀러는 'New Arabian Nights'이다.

로켓이북(www.rocket-ebook.com)은 인터넷 서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서의 데이터를 최대 10만 페이지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밑줄긋기, 메모하기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사이트 또한 내려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자책을 출간하고 있거나 출간 준비 중인 업체는 10여 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와이즈북닷컴(wisebook.com)이다. 이 곳의 전자책 특징은 종이책에서와는 달리, 책 속의 그림들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성우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는 데 있다. 이외에 와이즈북은 『남과 북』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작가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 화보집, 남북정상회담 관련 배경자료 등을 덧붙여 넣을 계획에 있다.



또한 인터넷 서점 예스24(yes24.com)는 기존의 종이책 출판사와 연계 없이, 지명도 높은 국내 작가들의 작품을 전자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자책으로 내는 것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됐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의 전자책 출판 방식과 비슷하다. 예스24가 출간 계약을 한 소설가는 윤대녕·박상우·이순원·구효서·전경린·하성란·김민숙·성석제 등 현재까지 8명. 다만 인세 책정 방식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종이책에서는 보통 정가의 10% 정도를 인세로 주고 있으나, 예스24는 계약금 형식으로 작가에게 1천만 원을 미리 주고, 권당 인세를 25~33% 정도로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판매고 부진에 따른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전자책 분야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곳은 북토피아. 김영사·청년사·사계절 등 100여 출판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서적 판문 사이트인 북토피아(booktopia)는 오는 6월 중에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2만 권의 전자책을 발행할 계획이다. 북토피아의 경우는 전혀 새로운 책을 파내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나와 있던 책 가운데 독자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책들을 추려 전자책으로 형태를 변환하는 방식을 취한다.

에버북닷컴(everbook.com)도 북토피아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전자책을 출간한다.

아직은 이들 회사 모두 시작단계에 불과하거나 흑자를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해결할 과제를 차분히 해결한 다음에 시장 성장 추이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정기구독안내

1. 구독신청방법

1. 일단, 02-318-5050(ext 119)번으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은행계좌로 구독료를 입금하신 다음 디지털 콘텐츠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3. 구독자 또는 구독기관명, 구독기간, 책을 받아보실 주소, 신청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02-318-5040번 팩스로 넣어주셔도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2. 정기구독료

6개월 : 30,000원 1년 : 55,000원 2년 : 110,000원
 ※ 권당 가격은 5,000원입니다.
 ※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편한책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구독료 입금계좌

- 조흥은행 무교동지점 390-03-003978/
- 국민은행 서린동지점 023-25-0008-729/
- 예금주 : 한국DB진흥센터